

MINISTER'S MESSAGE

Tom Bello, OFS 국가형제회 총봉사자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프란치스칸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번에는 지난 번의 글 “Miserando atque Eligendo” (<http://www.nafra-sfo.org/tau-usa/articles/winter13/minister-writer13.pdf>) 의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전번 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세리 레위를, 교황 프란치스코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자비의 눈으로 보시어” (miserando) 당신을 따르라고 “선택하심”(eligendo) 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나를 따르라”(“Follow me”)고 하신데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위에 있는 Caravaggio 의 그림 “마태오 성인을 부르심”을 보면 그리스도는 오른 편에 계십니다. 이제는 그림 왼편에 있는 레위/ 마태오에 집중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Miserando atque Eligendo”는 9 월 21 일 마태오성인 축일의 복음에 나오는 마태오의 부르심에 대하여, 베다 성인이 하신 유명한 강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또 베다성인은 주 예수를 “따르는”것이 마태오 성인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쓰셨습니다.

“베다 성인의 ‘따른다’는 말은 발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살으셨듯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목표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이득을 추구하지 않으며, 상스러운 칭찬을 멀리하고, 하늘에서의 영광을 위하여 지상에서의 모욕을 기꺼이 받아드리며,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고,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상처주지 말고, 자기에게 오는 상처를 인내로 받아들이고, 억압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용서를 청하고, 자신의 영광 대신에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천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오는 이렇게 지상의 이익을

버리고, 부(富) 라고는 전혀 없는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주님께서 마태오를 말씀으로 부르셨지만,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극의 선물을 주시어 그가 따라올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자극의 선물”은 세리 레위처럼 죄에서 벗어나 복음에 충실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으로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회개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이 회개로의 부르심은, 사순절의 부르심이며, 명백히 크리스찬의 부르심이며, 재속프란치스칸인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매일 부르십니다. 매일, 우리 모두를. 재속 프란치스코 회칙 7 조는 “ ‘회개하는 형제 자매’로서 회원은 자기 성소 때문에 복음의 강력한 힘에 자극받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내적 변화에 의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복음은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이 회개는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첫번째 제자들을 부르시기도 전에 우리 모두에게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 1,1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교회헌장 (Lumen Gentium) 5장 “교회의 보편적 성화 소명” 에 나오는 “나를 따르라”는 우리 모두에게의 보편적 소명은 성화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모든 완덕의 천상 스승이시며 모범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거룩한 생활의 창시자요, 완성자로서 당신의 모든 제자에게 어떠한 신분이든 그 한사람 한사람에게 생활의 성화를 가르치셨다.”(LG 40, 첫 문단) “모두가 성덕의 소명을 받았다.”(가톨릭 교리서, CCC 201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덕과 자기 신분의 완성을 추구하도록 권유받으며, 또 그러할 의무가 있다.”(LG 42, 5 번째 문단)

자, 그러면 성덕은 무엇입니까? CCC 2028 은 교회헌장 40 의 둘째 문단을 인용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교 생활의 완성과 사랑의 완덕으로 부름받는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완덕! 그뿐 아니라, 바실 성인의 동생인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의 “그리스도인의 완덕에는 한계가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완덕에 전혀 한계점이 없다는 바로 그 점이다.”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완덕,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훌륭한 목표입니다. 한 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의 완덕!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압니다. 또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의 힘으로는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과, 프란치스칸 가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우리를 사랑의 완덕에서 떼어놓고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쾌락의 욕망과 이 세상의 뜻, 특히 악마의 뜻, 즉 “육의 욕망, 눈의 욕망, 살림살이에 대한 자만” (1 요한 2,16)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그리고 사순절의 세가지 행위인, 자제와 단식으로 육의 욕망을, 애덕과 자선으로 눈의 욕망을, 기도와 회개로 자만의 삶과 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화, 사랑의 완덕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랑의 완덕을 추구하기로 할때, 제 2의 천성처럼 항상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 봅시다: 이 생각이 애덕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말들이 애덕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 말들을 애덕으로 말할 수 있는가? 이 행동이 애덕으로 생각한 행동인가? 이 행동이 애덕 안에서 이루어 질 것인가? 나에게 다가오는, 내 가까이에 앉아있는, 내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이사람을 애덕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우리의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충동이나,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할지를 컨트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적 충동과 우리가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조절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가 애덕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나 애덕은 길이요,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나 애덕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불을 붙이는 불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위험, 불완전의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죄악의 위험에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사제가 나를 옆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꾸짖듯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Tom,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 ‘내 앞으로 가서 나를 인도하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나는 사막으로 가서 악마에게서 직접 유혹을 받았다. 그러니 네가 악마를 찾아 갈 필요가 없다. 나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러니 네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혼자서 희생되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아니라, 내가 앞에서 가야 한다. 알았느냐?”

또, ‘나를 따르라’고 했지, ‘Tom, 내 옆에서 걸어라’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 어떤 때에는 내가 너를 안고 가야 할때도 있겠지만, 네가 내 옆에 서서 나의 교회, 나의 주교들, 나의 사제들이 이렇게 한 것, 또는 안 한 것들이 네 마음에 안 든다고 지적해서는 안된다. 나는 나와 동등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성부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단지 네가 ‘나를 따르기’를 바랄 뿐이다. 알겠느냐?”

자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끌으시더라도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시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와 사랑,

Tom